

# “이웃에서 ‘부처님 얼굴’ 찾아요”

“달공거사·은돌보살·연주보살·목탁거사·손오공은 모두 나의 분신입니다. 내가 빛어낸 주인공과 일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 만화는 생명력을 잃고 말지요. 나는 내 만화의 주인공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합니다.”

만화가 이정문 화백(55).

그의 집과 화실의 거리는 2.5km. 집에서 화실까지 가려면 올림픽공원 율타리 옆을 걸게 되는데 이 길에선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걷는 길로서는 최상인 이 길엔 혼자서 4계절의 장치가 늘 가득차 있어 작품구상에 최고의 산책로가 되고 있다. 아침 산책길 출근길이 끝난 곳에 그림의 사색과 창작활동 공간인 화실이 기다리고 있다. 동쪽 창이 활짝 트인 10여평의 아늑한 공간에서 그는 창작의 고통과 의로움을 남자(男子)처럼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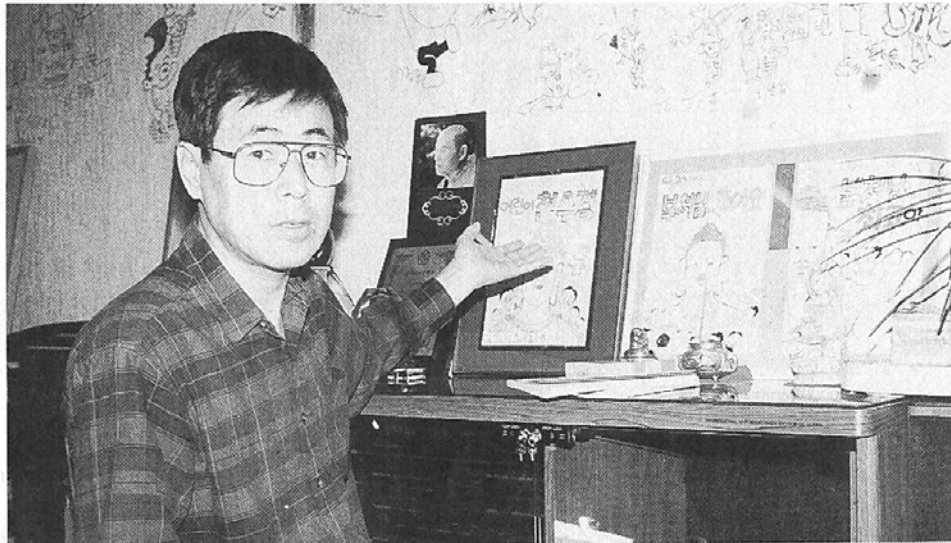
“완전히 절간이나 다름없죠. 하루종일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면 실어증이 오지는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창작은 항상 어렵지만 재미도 있어요. 스승들이 어려운 참선을 하며 무상(無上)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죠.”

오랜 창작의 길을 혼자서 걸어 온 그는 다른 만화가를처럼 기업형 만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작품구상에서부터 줄거리 구성, 만화화까지 전적으로 혼자만의 작업을 추구하는 그는 ‘제7의 미술계’를 앞서는 프로 예술인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곤 했습니다. 산속의 어느 절이었는데 왼쪽엔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스님 몇 분이 샘물가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고 저 아래엔 대웅전도 보였습

## 산문박의 禪

만화가 이정문 화백



굴을 찾기로 했다. 거리를 깨끗이 해주는 미화원 부처님, 목격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운전기사 부처님, 공장에서 딸출리는 근로자 부처님, 공부 중인 어민 등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부처님 얼굴을 찾아다니는 끝에 그림의 희화성(戲畫性)을 지닌 부처님 얼굴을 어렵게 완성했다.

“창작은 혼자서 꿈을 틀어헤야 한다”는 고집으로 36년간 술한 어려움을 견디며 만화가의 삶을 걸어 온 그는 93년도에 제3회 한국만화문화상을



상화·이기선

## ‘요익중생’이 바로 ‘홍익인간’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보배이다. 많은 역사책이 있지만 삼국유사처럼 돋보이는 고전서는 없다. 이 책은 일연스님이 저작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왕릉이나 정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왕조의 역사를 적기하였으므로 민족의 애환이나 수난이 별반 없다.

사실 역사는 제왕 장상만의 생활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공간사와 시간사에 있었던 모든 인물이 종합적으로 공개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 부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역사기록에 있어서 편협성을 면하기가 어렵다.

### 거시적 안목 ‘발군’

그 시대에 누가 살았던 무슨 일을 하였던 간에 하나 남김없이 수장하고 기록한다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역사서가 있다면 그 시대의 사람을 통시적 안목으로 조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총체적이고 통시적 사실을 감안할 수 있는 역사서가 없다. 왕조 중심의 편년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왕들의 치적은 헤아릴 수 있지만 서민, 농민, 장인의 고난사, 수난사, 일상사가 모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일연의 삼국유사는 남겨진 이야기, 남아 있었던 이야기, 주어 모아야 할 이야기를 하나하나 건져내어 구슬을 깨어 온 것이다. 왕력, 흥법, 의해, 탐상 등으로 엮어진 삼국유사 이것은 민족사로서 손꼽힐 책 일연스님을 만나며 신심깊은 불제자가 된 그는 불교민화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정신세계가 아직 메말라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등산할 때도 등산로에 가이 다니는 별레가 살 수 있게 등산과 대신 짚신을 신고 올라 가고픈 마음입니다.”

이화백의 선취(禪趣)는 화실의 안과 밖에서 다를 수 없다.

〈김재경 기자〉

각, 공예, 장엄 등으로 상징되고 조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문화예술을 창의 창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모두가 미상으로 되었으니 안타깝기 한이 없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유사의 역사적 의미성을 이의 행안이 아닐 수 없다. 요익중생 이 말은 불교경전에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는 보살정신이다. 보살은 고통받는 일체중생을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건져내는 구원자이다. 이를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연스님은 불교적 언어표현을 과감하게 전용한 것이다. 요익(饒益)을 홍익(弘益)이라고 중생을 인간으로... 요익은 무거운 감이 든다. 널리 구원한다는 의미가 함정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시 고려인의 가슴에 울리는 말,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은 ‘홍익’이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일연스님은 요익을 홍익으로 바꾸었고 또한 중생도 인간이라고 환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군의 정치이념이 종교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가 내포하는 사상은 일체중생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연스님이 人間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이란 말을 상용으로 쓰고 있지만 천여년전에 인간이란 어휘를 선택하여 삼국유사에 적기한 일은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 없다.

그러면 이 인간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단군왕조에서 나온다. 단군왕조에 대한 여러형태의 비관이 높지만 일연은 분명히 단군조선을 역사에 남겼고 또한 단군은 광명시세 홍익인간으로 나라와 겨레를 다스리는 이상을 삼은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국교다 싶어 한 시대이므로 ‘요익중생’이 제일 쉬운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일연스님은 과감하고도 용감하게 언어구사를 변혁시켰다. 저술의 현재였거나 아니면 시대적 거시안으로 내다 본 개척

한한 범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연스님은 종교의 다의적 의미와 정치의 일의적 의미를 잘 선별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말들이 맞고 안맞고는 비평자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보살정신 결정체 그러나 일연의 의도는 바로 쉬운 말, 민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돋보인다.

역사기록은 종합적이고 통시적 기록이 되어야 할과 동시에 문화생활 전반에 담출리고 퍼뜨린 서민, 천민의 기록도 필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부각이 뚜렷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이란 용어도 일연스민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한 시대적 용어로 채택되어 상용되었다는 것은 한 스님이 언어문화의 영원성을 내어 놓은 상징적 선양성이 아닌가 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23

인간

### 일연스님의 용어선택 감탄할뿐

## 만화 그리면서 ‘마음 비우기’ 수행... 마감땀 왓지 원력 생겨 “경서 읽을수록 입에서 향기나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니다.”

이화백은 자주 보이는 이러한 꿈을 근거로 자신이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스님’ 시절 경내 청소를 게을리 해서인지 금세(金世)인 지금, 집안 청소는 도맡아 해오고 있고 ‘스님’ 시절 공부를 게을리 해서인지 오늘날 불교만화를 그리기 위해 온갖 불서들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면서...



### 14년전 달공거사 탄생

59년 만화가 입문 이후 무수한 종류의 만화를 그려왔지만 불교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났다. 그러던 차에 14년전 어느 날 우연한 필연반으로 당시 ‘불광’지 주간으로 있던 지법스님을 만나면서 광덕스님의 허락하에 ‘달공거사’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심이 돈독한 불자들이 보는 책이라 그때부터 불서들을 구해다 읽고 보며 달공거사의 만화스토리를 꾸며 나갔지요. 결정에 꼭 찬 부처님의 진리를 읽으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광채가 나

는 듯 했습니다.”

불교만화를 시작하면서 그가 무척이나 고심한 게 하나 있었다. 부처님 존상(尊像)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서울 조계사에 계신 부처님, 잠실 불광사, 마곡사 영은암의 부처님, 송광사, 불국사 등 곳곳의 산사와 말사에 계신 부처님들, 자비로 가득찬 넉넉한 존상에 의경을 느끼게 하는 성(聖)스러움이 배어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처님의 얼굴’을 만화로 표현하기가 난감했다는 것이다.

이화백은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볼지나 불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시키고 그 나름대로 ‘만화화’ 되신 부처님,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표현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으나 오랫동안 자족(自足)할 만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의 만화 속에는 한동안 부처님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다. 잘못 표현하게 되면 경박스럽고 천박한 표정이 나와 마음에 드는 부처님 얼굴을 형상화할 수 없었던 것.

### 한국만화문화상 수상

하지만 불교만화 속에 ‘말씀’만 나오오 부처님 존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아 그 나름대로 ‘부처님 얼굴’을 찾기 위한 작업은 계속됐다. 그는 보전(寶殿)에 계신 부처님보다 바로 내 이웃에 있는 많은 부처님들 일

수상, 오랜 창작활동의 보람을 맛보기도 했다.

“원고마감이 다가오면 이상한 원력으로 작품을 무사히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린 부처님 존상을 향해 아침 저녁 삼배를 올리지요.”

화실에서 그의 작업은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하는 선승(禪僧)의 ‘마음 비우기’ 작업과 닮았다. 묵언(默言)수행에 열중한 수도자처럼 그의 머릿속엔 부처님의 말씀과 온갖 그림이 화두(話頭)처럼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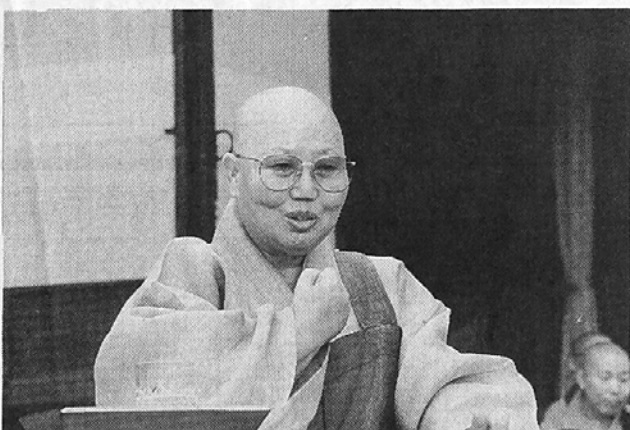
“진법(眞法)은 최상의 보시”라는 신념으로 불교만화 불모지에서 14년간 묵묵히 창작활동을 해 온 그는 좋은 표현하게 되면 경박스럽고 천박한 표정이 나와 마음에 드는 부처님 얼굴을 형상화할 수 없었던 것.

“이제는 등산할 때도 등산로에 가이 다니는 별레가 살 수 있게 등산과 대신 짚신을 신고 올라 가고픈 마음입니다.”

이화백의 선취(禪趣)는 화실의 안과 밖에서 다를 수 없다.

〈김재경 기자〉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준공법회



일시: 불기 2539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마음의 등불을 밝힐  
도량이 신축되어  
대행스님을 모시고  
준공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장 혜월 합장  
신도회장 김희남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전화: (062) 373-8801~3, FAX (062) 373-0174

불사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일동-

상 호	대표자	전 화
현대부동산	박용섭	371-8866
진국개발(미장)	주영길	0685-92-3763
(주)해성기업(방수)	류수상	223-3163
풍진상사(동기화)	이승진	02-400-5760
동양물산(주)(유리블럭)	최원기	521-9854
금강조경	이종국	523-1055
금강석재	조왕기	0652-211-2882
광주문집	정해명	523-4384
동양정보통신(방송시설)	박내홍	0631-72-4555
대동벽지	강소형	528-7660
광명샤슈	임동욱	265-8068
순천골드룸	임영수	0661-741-7309

-무순-

